

대도시 취약계층의 보건소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일개 구를 중심으로-

황인영*, 백희정*, 고영애*, 이순례**, 한미숙**

(* 적십자간호대학, ** 마포구보건소)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전달체계상 민간의료기관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일반 의료기관이 적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은 의료이용에 있어 의료기관 접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경제적, 지리적으로 접근도가 낮은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보건소가 기초가 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저해요인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의 건강문제와 건강관리실태 및 보건소 의료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0세 이상 방문간호대상자와 노인정 이용자 중 편의 추출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직접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의료비 지출 정도를 조사하였고, 건강관련 변수로 만성질환 유병상태, 치료상태 및 기타 건강문제를 조사하였다. 또한 보건소 이용관련 변수로 이용 사유

및 이용에 따른 불편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총 161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8.7%가 여성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40세 ~ 91세이었고, 평균 69.28 ± 11.12 세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75.2%이었다. 수입 중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20.1%로 식비, 주거비 다음 순이었다.

대상자의 90%가 만성질환자 이었으며, 이 중 55.9%가 두 가지 이상 복합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46.2%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40.7%), 당뇨(23.0%)의 순이었다. 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 이용이 28.3%, 보건소와 중소병원 이용이 각각 25.2%이었다. 의료이용의 주요 장애요인은 진료비 부담(45.6%)과 이동불편(35.2%)이었다. 41.2%가 보건소를 이용한 적이 없었으며, 37.5%가 년 5회 미만 이용하였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의 이동 불가(24.2%)이었다.